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사도10,34-37-43

[화 답 송] 시편118(117), 1-2, 16-17, 22-23(◎24)

◎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또는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줄으신 분, 찬송하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리라. “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부 속 가] 필리2,8-9참조

파 스 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 리 아, 말하여라, 무 었 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영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환 호 송] 1코린5,7,8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20, 1-9

<또는 마태28, 1-10 또는 저녁미사에서는 루카24, 13-35>

[제 2독서] 콜로3, 1-4<또는1코린5,6-8>

성가	8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135	성체 165 128	파견 134
	11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135	성체 165 128	파견 134

## 주일 전례 봉사

구 분	예수부활대축일(4월 20일)	부활 제2주일(4월 27일)		부활 제3주일(5월 4일)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권미카엘(창모)	이바오로(명국)	조레지나(선덕)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임루카(승원)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손리디아(정옥)	김안젤라(영선)	김테레사(승희)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아! 부활

길을 걷다  
 길을 잃어버린  
 겨울이었습시다  
 수줍어  
 꽃잎 노란 산수유  
 눈물 앞새 부끄러워 뒤척이며  
 떨어던 밤도 지나  
 자유다 분분합니다  
 길 위에 선다는 것은  
 화들짝!  
 한 번의 환희만으로도  
 견딜만한 일인가 봄니다(2010년)

나는 자유다  
 봄날에 기억하는 모든 것은 자유다  
 기쁨이다 스스럼없이 산수유이고  
 개나리이며 매화다  
 진달래이며  
 목련, 4월 안에  
 그리움이다  
 부활은  
 벚꽃 환호다  
 갯벌 저어새며  
 멀고 먼 상사화의 꽃  
 대잔디 꽃  
 너그러움이다  
 사람들은 말하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마구 들썩이는  
 이유를  
 그래, 자유다(2011년)

그래, 봄에 피는  
 모든 꽃은 자유다  
 마른 잎 하나까지도  
 다 떨구고  
 꺼억꺼억 숨을 몰아내던  
 감나무에 웅성웅성 새순이 돋고  
 광광 얼어붙어  
 토끼 발자욱조차 허락하지 않던  
 연못가에  
 줄기에 달려 흰 머리카락 날리며  
 할미꽃 달음질쳐 웃고 있네  
 이른 봄에 다시 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새순도 꽃들도 그래서  
 봄에는 착한 상처 냄새가 나는가 보다  
 살아서 흔들리며  
 늘 아파하면서도 피어나기에(2012년)

봄 밤  
 달빛에도 향기가 나나요  
 창문 열고 다가오는 환한 벚꽃  
 금낭화 앵초 매발톱, 수 놓은 꽃 잔디  
 모두가 수고롭다(2013년)

2014년 부활  
 제비꽃  
 수선화에게 말 건네듯  
 살며시 다가와 번져나가다  
 목련은 힘 모아  
 저녁 달밤에 숨 쉬듯  
 진달래 내려놓고  
 잊지 않으려오 나는  
 그날의 추억  
 몸 다해 엮힌 실타래를  
 풀며 나누었던 애기들

박병훈 요셉 신부  
 인천교구 신천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요한20,1) 세 사람의 뿔박질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여인” 이고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던” 여인이며 (루카 8,1-3 참조) “십자가 아래에 증인” 으로 있었던 여인 (루카 23,49 참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추종했던 여인, 평생을 예수님께 사로 잡혀 산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뒤에 열두 제자 중의 으뜸이었고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며(마태 16,18 참조) 무한한 신뢰를 보내셨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의 길을 떠났을 때도(요한6,66 참조) 오히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 6,68)라고 단호하게 신앙고백을 했던 열정 넘치는 제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도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요한 13,23) 있었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낼 때는 멀리 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십니다.” (요한 21,7)하고 베드로에게 소리치듯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역시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요한 20,1) 세상은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이름을 부르신 이들, 그분과 함께 빵을 나누던 사람들, 그리고 평화의 말씀을 건넸던 사람들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추종했고 열정을 드렸으며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체험했던 부활의 현장입니다. 실패, 좌절, 낙담, 원망, 분노...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게 되었고, 언제나 따르고자 하는 추종의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은 다시 한 번 일어나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가끔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었어도, 배신의 그림자가 있었어도, 자신의 잘못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도, 열정에겐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또 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달립니다. 아픔도 있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베드로를 막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힘겨운 시간에 내

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불러 주신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뛰어와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어둡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에게겐 이른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강귀석 신부  
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에서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뵈다 해도  
그 신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모직 믿음만이 알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할 빈 무덤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글 김종수 주교 / 그림 김미경

말씀의 향기

죽으면 떠나는 십자가

젊었을 때 오랫동안 가정을 등한시켰다 돌아온 한 남편이, 아들과 아내에게 가꿈씩 듣는 비난에 대해 억울함을 털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떠났던 것은 그녀의 성격 탓이었고, 그럼에도 돌아온 후에는 잘못을 빌었으며, 떠나 있는 동안에도 경제적으로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했으니 더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용서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희생제물이나 번제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고, 오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어쩌면 보속으로 생각하면서 물질적으로 보상했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그 자세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가족들은 깊이 회개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버림받아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상실 당했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온순했던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변화가 자기 때문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자신이 오히려 가족들의 비난이라는 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죽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청하는 일이, 그리고 반대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기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거나 용서를 청하기 싫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절박했던 날, 예수님 대신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만큼이나 괴롭습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해 그만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를 위로해 주러 온 친구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또다시 쓰러집니다. 위로받을수록,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모를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책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옷을 벗겨 저와 십자가 사이에 있는 옷의 간격마저 없애버리시고, 다시 옷을 박아 십자가와 제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내가 되고 내가 십자가가 되니, 그 십자가가 저

를 지탱하느라 느꼈던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없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고 나니 십자가에서 내려지며 십자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하시어 자유롭게 하시며 용서를 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제게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황영애 에스텔  
상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전례상식

부활초에 왜 여러 가지 표상을 새기나요?

부활초에 새겨지는 여러 가지 표상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으나, 이 십자가의 다섯 상처에는 우주와 시간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빛과 생명, 만물의 시작과 현재와 끝, 영원한 영광과 통치권을 지닌 주님이 되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 다섯째 계명

가톨릭전례

###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 13)

“살인하지 말라” 는 다섯째 계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므로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섯째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에,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기서는 인간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형 제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에 맞설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사형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징벌의 의미보다는 우리들의 복수심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 2) 낙태

인간의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임신 1개월의 태아라고 할지라도 낙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수정란을 가지고 실험 조작을 하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하도록 만드는 사회 현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 경솔한 성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낙태를 하지 말라” 는 계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그릇된 사회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3) 안락사 문제

현대 의학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치료의 희망 없이 생명만 연장되는 불치병 환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도 심각한 것이지만, 환자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용은 환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안락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77 항).”

여기서 우리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과 “지나친 치료” 를 거부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기구의 사용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 기구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78항).”

#### 4) 자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살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입니다. 또한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반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중한 정신 장애나, 시련, 고통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83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4월22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전데레사(정희)	가족
	연 김율리아노(정현)	윤루카/루시아
	연 세월여객선희생자	김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김데레사
	생 박요한(종영)	정베드로
	4월23일 수	연 이스테파노(상준)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4월24일 목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유조형/오옥희	김데레사
	연 유베드로/유F.하비에르	김데레사
	생 이스테파노 가족들	송베로니카
	4월26일 토	연 박막달레나/정베드로
	연 이스테파노(상준)	전마리나(소영)
	생 성령기도회 활성화	성령기도회
	생 박글라라와 자손들	박데레사
	생 Justin Lee	이막달레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100	250	31	381
헌 금	\$725	\$1,537	\$65	\$2,327

< 교무금 > \$3,330

김영민(4) 이기희(11-12/13, 1-4/14) 최은용(3-4)  
강선미(1-12/13) 조관식(4) 윤성진(1-3) 최순일(4)  
구태영(3-4) 양우선(4) 허동원(4) 신현규(1-4)  
장찬호(4-6) 황정희(4) 최윤기(4) 이성재(3-4)  
차영화(4-5) 한치용(4-5) 엄철기(1-4)

< 성소후원금 >

최윤기(4)

< Bishop's Appeal > \$40

김영민(4) 최윤기(4)

< 감사헌금 > -

< 부활초/꽃봉헌 >

한동설 \$100

\* 이상준 스테파노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1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오늘은 각 구역별로 음식 판매를 합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



- ◆ 성모의 밤 미사 : 5월 3일(토) 저녁 8시
  - \*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봉헌을 준비해 주십시오.
  - \* 단체별 꽃봉헌은 각 단체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 성모의 밤 제대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 Rice Bowl 봉헌 : 성당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 매월 첫금요일은 환자봉성체가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원하시는 가정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사진동호회 : 4월 27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 일시 : 4월 24일(목) 오후 4시
  -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 대건산악회 창립 및 회원모집 설명회
  - 교우들의 건강과 친교를 위한 산악회를 발족하고 함께 산행(걷기)을 하실 회원을 모집하고자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5월 4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대상 : 산행(걷기)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
  - 문의 : 회장 평현팔 하비에르 408-301-2299  
부회장 장진원 베로니카 510-402-3219

| 4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3-4장 |
|---------|-------------|------------|
| 5 구역    | 4월27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9 구역    | 4월26일(토) 6시 | 정승철 안드레아 맥 |
| 10 구역   | 4월27일(일) 6시 | 양우선 요한 맥   |

- ◆ 주일학교 여름캠프
  - High school : 7월 27일 - 7월 30일
  - Jr. High : 7월 30일 - 8월 1일
  - 장소 : <http://www.goldenvalleycamp.org/>
- ◆ 청소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 26일(토) 12시
  -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 Oakland
  - 접수 : 8시/교중미사 후 친교실
- ◆ FIAT 장학금 신청
  - 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고등학교 9-11학년)
  - 마감 : 5월 31일
  - 문의 : [fiat@fiat.org](mailto:fiat@fiat.org) 714-772-3995(ext. 106)
- ◆ 내일 21일 월요일은 사무실 부활휴무입니다.

✧ 수 고 아 션 습 니 다 . ✧

사순시기와 부활 전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봉사해 주신 전례단과 성가대, 각 구역의 구역원 여러분  
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

- 오늘은 부활절 합동미사로 영어미사는 없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정승은**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
- 4월 26일 : 청소년 기금마련 골프대회
- 5월 10일 : 북가주 협의회 주최 꿈나무 예술제